

컨테이너 운임 계속 상승할 듯!

한진해운, 비수기 2월에도 강세 ... 유가 상승으로 할증료 인상

해운업계의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진해운이 매달 산출하는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비수기인 2월에도 강세를 기록했다.

2003년 2월 평균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106.2를 기록해 2002년 같은 기간 88.4와 비교해 17.8% 상승했고 2003년 1월의 102.8에 비해서도 3.4% 높아졌다.

한진해운은 2002년 급속히 하락한 운임을 회복하기 위해 미주 및 구주항로 취항 선사들과 함께 2003년 5월1 일자로 미주항로 운임을 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525달러, FEU(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700달러 인상할 계획이다.

유럽항로도 2003년 1월 FEU당 365달러를 인상한데 이어 4월1일부터 TEU당 150달러, FEU당 300달러를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보전 차원에서 유가할증료(BAF)를 아시아-북미항로는 FEU당 185달러에서 230달러로, 아시아-구주항로는 FEU당 194달러에서 224달러로 인상·조정기로 했다.

한진해운은 현재 아시아발 미주항로(서안 기준)의 FEU당 운임은 전자제품을 기준으로 할 때 2100-2200달러 수준이라며, 운임 인상이 예정대로 단행되면 5월 초에는 2900-3000달러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02년 말에 미주항로 운임이 FEU당 1800달러대였던 점과 비교하면 60% 이상 급등하는 셈이다.

<Chemical Journal 2003/ 03/ 17>